

보도	2025.3.27.(목) 09:30	배포	2025.3.26.(수)	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팀	책임자	국 장	박성주	(02-3145-7890)
		담당자	팀 장	최윤선	(02-3145-7901)

금융감독원,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「FSS SPEAKS 2025」 개최

— 주요 내용 —

- 금융감독원은 '25.3.27.(목)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금융감독·검사 방향을 설명하고,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·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「FSS SPEAKS 2025」를 개최하였음
-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, 주한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* 등 총 2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, 외빈 축사와 주제 발표에 이어 권역별 금융감독·검사업무 설명회가 진행되었음

* 주한 상공회의소·금융위원회·서울시·서울투자청·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

- **(외빈 축사)** 영국·일본·싱가포르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이 중요한 금융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, 향후에도 양국간 교류 확대 및 금융감독 등 관련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발언
- **(주제 발표)** 스위스리(홍콩)가 「'25년도 글로벌 경제전망*」을, 금감원이 「'25년도 금융감독·검사업무 방향」과 「디지털 금융동향 및 감독방향」을 각각 발표

*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, 향후 3년간 미국 경제는 연간 1.5~1.9%, 유럽은 0.9~1.5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, 중국 경제는 4%대로 다소 둔화 예상 ('25년 4.8%, '26년 4.3%)

「FSS SPEAKS 2025」 개요

- ☑ **일시·장소:** '25. 3. 27.(목) 09:00 ~ 11:30,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
- ☑ **부 제:** Financial Stability: The Path to Shared Growth
(금융안정으로 여는 동반성장의 길)
- ☑ **참석자:**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및 임직원, 주한 대사관, 주한 상공회의소, 금융위원회, 서울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230여명

I 행사 주요내용

1 금융감독원장 환영사 및 외빈 축사

■ FSS SPEAKS 2025는 'Financial Stability: The Path to Shared Growth (금융안정으로 여는 동반성장의 길)'라는 부제 하에 금융감독원장의 환영사 및 영국·일본·싱가포르대사의 축사로 시작

금융감독원장 환영사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어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과 시장변동성 확대 우려가 높다고 언급하며,
 - 금융감독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, 나아가 금융산업이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함
 - 이를 위해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, 객관적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안정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가운데,
 -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계 안착 및 원활한 공매도 재개를 면밀히 준비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
 - 또한, 균형감 있는 디지털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
- 마지막으로, 그동안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 삼아 성장해 왔고 최근에도 국내외 정치·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중임을 강조하며,
 - 한국 금융시장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외국계 금융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한 제언을 해줄 것을 당부함

영국대사 축하

-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등 지난 몇 년간의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언급하며,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, 기업 성장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중이라고 발언
 - 또한, 영국과 한국은 금융·외교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
 - 최근 영국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으로 향후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

일본대사 축하

- 미즈시마 코이치 일본대사는 한·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정치·경제 분야뿐 아니라 금융감독 분야에서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
 - '23년 최고위급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7년만에 재개된데 이어, 양국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왔으며
 - 최근 대내외 정치·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으로 한국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

싱가포르대사 축하

- 에릭 테오 싱가포르대사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감독현안과 금융회사의 성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중이며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유지 등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언
 - 또한, 양 기관의 역할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저성장 기조 등 복잡한 글로벌 경제·금융환경하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며
 - 올해는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

1 외부전문가 주제 발표

○ 「'25년도 글로벌 경제전망」

[스위스리(홍콩), John Zhu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]

2 금융감독원 주제 발표

① 「'25년도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금융감독·검사업무 방향」

② 「디지털 금융 동향 및 감독방향」

발표① | '25년도 글로벌 경제전망

□ 스위스리(홍콩) [John Zhu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]가 홍콩 현지에서 화상으로 「'25년도 글로벌 경제전망」을 발표

-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이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나, 아시아 신흥국(중국 제외)은 5%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한편, 미국의 관세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
 - 미국은 관세부과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,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수출지역 다변화 및 유희설비 재분배 등이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
- 향후 3년간('25~'27)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는 수렴*(미국↓·유럽↑)하고, 중국은 성장률이 다소 하향되지만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* 스위스리는 '26년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컨센서스(2.0%) 대비 0.5%p 낮은 1.5%로, 유럽은 컨센서스(1.3%) 대비 0.2%p 높은 1.5%로 제시

【GDP 성장률 전망】	2025	2026	2027
미 국	1.8%	1.5%	1.9%
유 럽	0.9%	1.5%	1.3%
중 국	4.8%	4.3%	-

발표② | '25년도 금융감독·검사업무 방향

- 이어서, 금융감독원 이창규 기획조정국장은 「'25년도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금융감독·검사업무 방향」을 설명
-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불완전판매 발생 등에 따른 금융산업 신뢰도 저하 등 최근 감독환경을 언급하며
 - 안정, 신뢰, 상생, 미래, 쇄신 등 금융감독 5대 전략목표* 및 14대 핵심과제를 소개하고
- * ①(안정)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, ②(신뢰)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, ③(상생)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, ④(미래)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, ⑤(쇄신)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
-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, 잠재리스크 선제대응 및 시장질서 확립 등 '25년도 검사업무 운영원칙을 설명함

발표③ | 디지털 금융 동향 및 감독방향

- 끝으로, 금융감독원 위충기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은 「디지털 금융 동향 및 감독방향」을 발표
- 금융거래의 非대면화, 금융플랫폼간 경쟁심화 및 지급결제 수단의 다변화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설명하고
 - 혁신금융 확대, 데이터산업 확장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
 -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·IT 조직 및 목표를 소개하고 혁신금융, 금융IT,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등 4개 부문*에 대한 감독방향을 제시함
- * ①(혁신금융) 금융분야 AI 활용 촉진, ②(금융IT) 금융회사 IT운영 거버넌스 강화 및 통합 관제체계 구축, ③(전자금융)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제고, ④(가상자산) 가상자산 규율체계 고도화 등
- 아울러,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내용을 설명하고,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함
- ※ 이어진 세션Ⅱ에서는 권역별 소관 부서장이 금융감독·검사 방향을 설명하고, 외국계 금융회사와 질의·응답 시간을 가졌음

Ⅱ 향후 계획

- 외국계 금융회사 참석자 등은 매년 개최되는 FSS SPEAKS 행사를 상호간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평가하였음
- 한편,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제기한 애로·건의사항을 금융감독·검사 및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 반영하고,
 - 향후에도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및 주요 이슈별 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

※ 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환영사(국문) 1부



시 간	내 용	대 상 자
09:00 ~ 09:30(30분)	참가자 등록	초 참석자
09:00~09:20(20분)	VIP 미팅	원장, 금감원 임원, 대사, 연사 등
09:20~09:30(10분)	VIP 사진촬영	
09:30 ~ 10:20(50분)	SESSION I: 오프닝 행사	
09:30~09:33 (3분)	개회선언 및 VIP소개	사회자
09:33~09:36 (3분)	환영사	이복현 금융감독원장
09:36~09:39 (3분)	축 사	영국 대사
09:39~09:42 (3분)		일본 대사
09:42~09:45 (3분)		싱가포르 대사
09:45~10:00(15분)	'25년도 글로벌 경제전망	스위스리(홍콩) (John Zhu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)
10:00~10:10(10분)	'25년도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금융감독·검사업무 방향	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
10:10~10:20(10분)	디지털 금융 동향 및 감독방향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
10:20 ~ 10:40(20분)	SESSION I 마무리 및 SESSION II 준비	
10:40 ~ 11:30(50분)	SESSION II: 권역별 감독·검사업무 설명회	
	[Room 1] 은행부문 감독·검사업무	은행감독국장
	[Room 2] 보험부문 감독·검사업무	보험감독국장
	[Room 3] 금투부문 감독·검사업무	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